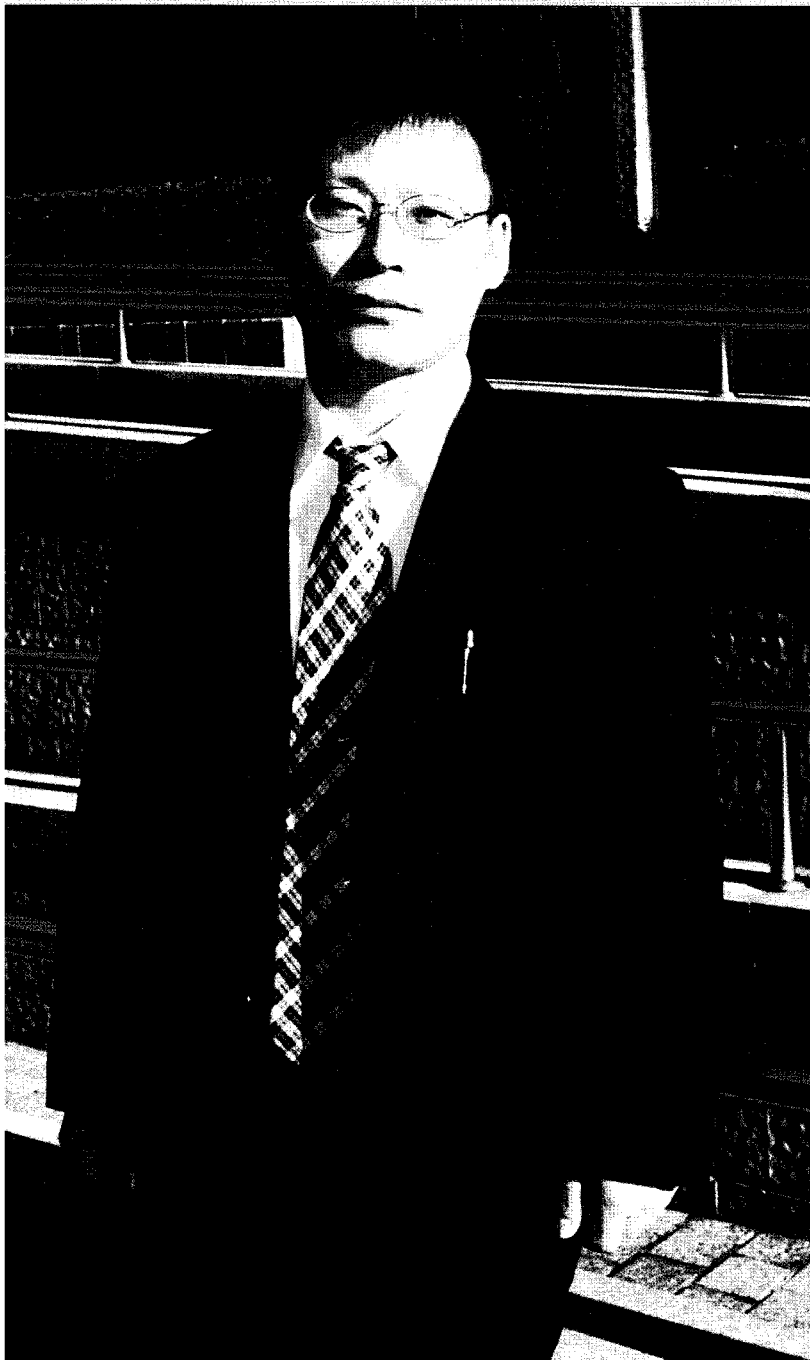


ESCO 적격심사기준 개정으로 관공서 입찰경쟁 순항 기대

■ 김인숙 기자(kis@energycenter.co.kr)



입찰금액별 심사항목과 배점한도 조정, 낙찰자 선정 방법 변경, 우수ESCO 인증항목 신설, ESCO협회의 기능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적격심사기준 개정안이 12월 중순경 최종 확정, 공고될 예정이다. 그동안 관계기관과 ESCO협회, ESCO업체들이 적격심사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사항들을 개정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산자부 자원정책과의 김종환 주무관은 지난해 12월부터 1년 남짓 ESCO관련업무를 맡으면서 누구보다 의욕적으로 나서며 많은 수고를 들었다.

최근 새로운 업무를 맡게 된 김종환 주무관은 “이번 개정을 계기로 적격심사기준 해석을 둘러싼 업체들간의 상호갈등이 해소되고, 발주처와의 마찰도 발생하지 않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SCO사업에 대한 첫인상은 ‘민원발생이 지나치게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그 대부분이 사업의 발전적인 방향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시장 전체가 위축될 우려가 있는 내용 이어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가장 큰 과제였습니다.”

김 주무관은 처음엔 과도한 민원 탓에 ESCO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도 없지 않았으나 에너지관리공단과 ESCO협회, ESCO 및 발주처 관계자 등 실무 담당자들과 만나 의견들을 수렴하고 함께 호흡을 맞춰 일하는 과정에서 공통의식을 느끼게 됐고, 좀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준 것에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적격심사기준 개정안 마련 공무원도 맡은 분야 전문가 되어야

지난 85년 공직에 입문해 올해로 공직생활한지 만 17년이 된다는 김 주무관은 그동안 광업등록사무소와 에너지정책과, 자유무역지역관리원 등을 거쳤다. 공무원으로서 그가 가진 철칙은 맡은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무원으로서 김종환 주무관이 가진 철칙은 말은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ESCO관련업무는 현장경험이 중요한데 실제 사업이 추진되는 현장의 실무담당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애로사항을 듣고 사업방향이나 각종 정보들을 공유한다면 보다 현장감있는 행정이 될 수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찾은 인사로 인해 전문가만큼의 능력을 배양하기에는 한계가 따르지만 좀더 넓은 시야를 갖고 많은 경험을 쌓는다면 훨씬 능률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ESCO관련업무는 현장경험이 중요한데 그런 기회가 적었던 것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실제 사업이 추진되는 현장의 일선에서 근무하시는 분들과의 만남을 통해 애로사항을 듣고 사업방향이나 각종 정보들을 공유한다면 보다 현장감있는 행정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이번에 개정될 적격심사기준에 따르면 입찰금액별 심사항목과 배점한도를 조정, 우수ESCO인증업체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입찰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을 확대했다. 또 당해용역 수행능력중 사업경험부문의 배점비중을 하향조정해 중소기업과 신규진입기업에 대한 사업참여 기회를 넓혔다. 그동안 에너지사용자의 주관적인 평가로 인하여 문제가 제기됐던 사후관리 평가부분도 배점한도를 축소시켰다.

낙찰자 선정방법에 있어서는 적격심사기준 낙찰자를 85~95점 이상인 최저입찰자를 선정토록 하고 해당자가 없을 경우에는 일정점수 이상인 자로 선정되되 일정점수 이상에 대한 규정을 사업금액별로 구체화하여 적격심사기준 적용후 선정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아울러 우수 ESCO에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건실한 ESCO를 양성하고 에너지사용자에게는 선택의 기회를 넓혀주기 위한 목적으로 ‘우수ESCO인증제도’를 도입,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2006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SCO 상호간의 결속력 강화해 한단계 성숙된 ESCO사업 기대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 주목되는 내용은 ESCO협회의 기능 및 역할이 증대된다는 점이다. 기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시행하던 실적증명서 발급기능을 ESCO협회로 이관하고, 부채

비율 및 매출액 순이익률에 대한 관련자료를 협회에서 확보하여 확인서를 발급함으로써 공단 뿐 아니라 업체나 발주처의 행정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환 주무관은 이를 통해 ESCO협회의 위상강화는 물론 사업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ESCO 상호간의 결속력도 더욱 견고해지는 계기가 되리라고 본다.

“ESCO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대변해줄 수 있는 곳은 ESCO협회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ESCO들이 협회를 이용하지 않고 개별행동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사용자에게 ESCO에 대한 나쁜 선입견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올해가 ESCO 탄생 10주년이 되는 해라고 합니다. 그동안 사업규모는 급속히 팽창한 반면 사람들의 마인드는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 아쉬웠는데 이제 한단계 성숙해 ESCO사업이 새로운 궤도에 오르기를 바랍니다.”

앞으로의 ESCO사업에 대해 김 주무관은 “아직은 ESCO사업에 있어 대체에너지분야가 생소하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보급확대추진에 힘입어 지금의 조명이나 폐열회수분야처럼 보편화되고, 에너지절약이 곧 환경보호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절약수요가 다양하게 발굴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그동안 ESCO사업의 발전을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는 아낌없이 조언해준 관계자들에게 마음 깊이 감사드린다”며 “비록 담당업무는 바뀌었지만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갖고 ESCO사업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해 변함없는 그의 향상심(恒心)을 느끼기에 충분했다.☺